

빙상 세계신기록 이강석 선수

의정부시 홍보대사로 위촉



의정부시는 4월6일 빙상계의 세계적인 스타 이강석 선수를 의정부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의 위촉은 '자랑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의 시정 방침 아래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국제화시대를 맞아 의정부시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이강석 선수는 시의 문화, 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시를 적극 홍보하고, 시정홍보물, CF모델, 각종 캠페인과 국내외 활동을 통해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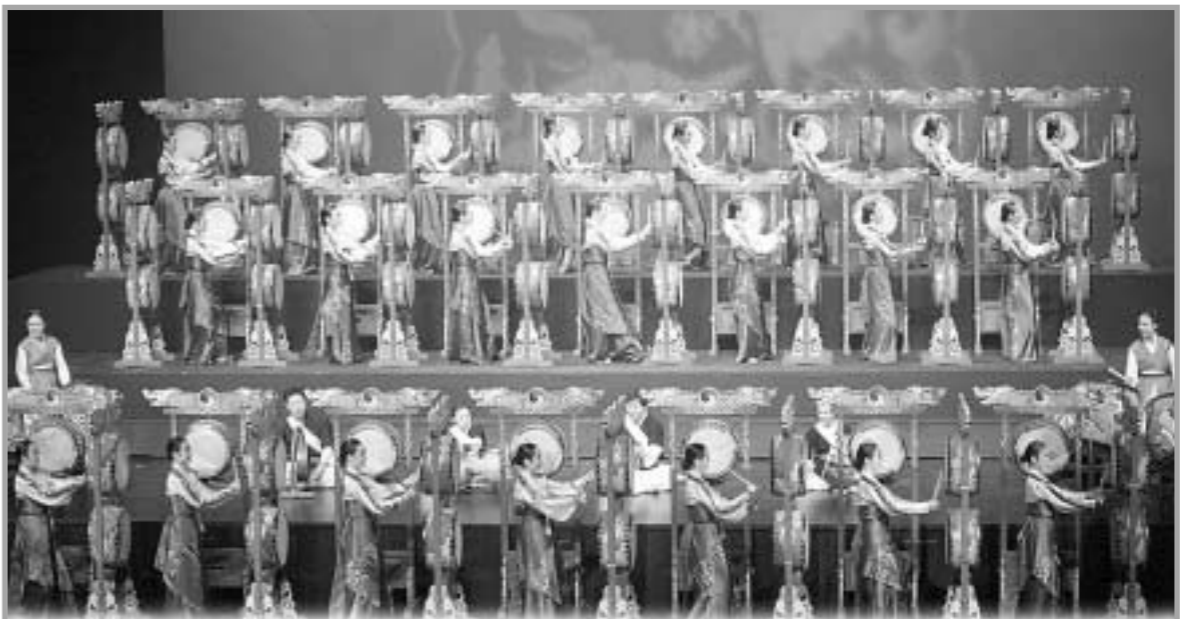
특히 이 선수는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 홍보활동과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및 캠페인 참여 등 시정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강석 선수는 의정부동에서 태어나 중앙초등학교와 의정부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올해 1월 1일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했다.

이 선수는 2006년 제20회 토니노 동계올림픽 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올해에는 제6회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500m 금메달 및 100m동메달, 제9차 스피드 월드컵 500m 은메달, 세계선수권대회 500m 금메달 및 34.25초로 세계신 기록을 달성했다.

시는 2004년 임홍길 산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대회 출전해 국내외에서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에 위촉된 이강석 선수와 함께 시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6회 전국무용제 본선대회 의정부시 개최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관계자 회의에서 확정

국내 최대의 무용축제인 2007년도 제16회 전국무용제 본선대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4월3일 의정부예술의전당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자 회의에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용협회, 15개 시도 공무원, 시도 문화예술위원회에 유치 신청을 했고 그해 10월 2007년 개최지로 선정돼 경기도에서 최초로 의정부에서 열리게 되었다.

본선대회에 앞서 6월까지의 시도별로 지역예선대회가 치러지며 오는 7월 최종 대표자 회의에서 본선 심사기준과 시상준비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매년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는 전국무용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하고 개최 시도와 시도 무용협회가 주관하며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이 후원하는 무용경연대회로서 그간 한국무용의 산실이자 지역무용 예술문화교류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소외계층 고통 덜기 위해 노력” 다짐

4월3일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인순이

포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가수 인순이씨가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혼혈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렬한 열정과 폭발적 가창력으로 최근에도 '친구여(With 조 PD)', '하늘이여 제발(주몽 주제곡)' 등의 히트곡을 내며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인순이씨가 자신의 청소년기를 함께 한 경기도의 제안을 적극 수용 4월3일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순이씨는 출생지는 경남 진해이지만 청소년기를 경기북부에서 보내 평소 경기도에 대한 애절한 향수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한 인순이씨는 "향후 경기도가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이웃한 강대국의 경쟁도시들을 당당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 힘을 보탬 것이며, 특히 아동이나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상처받은 이들을 어루만지고, 소외계층의 고통을 덜어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다 눈을 돌려 바다 건너 이웃을 보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인순이씨의 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순이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순이씨는 향후 2년간 경기도의 각종 정책을 홍보하고, 공식 비공식 행사 및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 경기도를 알리는데 앞장서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가동

의정부시 유통업 상생발전 협력선언서 채택

의정부시는 3월30일 의정부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김경환 부시장의 주재 하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대·중소유통업 대표, 소비자단체 회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 학계 전문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협의회를 통해 의정부시 유통업상생발전 협력선언서를 채택했다.

의정부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시장 개발과 대형유통점의 확산 및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 등의 여건으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이 침체되어 대·중소유통업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간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확산하여 동반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했다.

이날 채택된 유통업 상생발전 협력선언서는 대·중소유통업간 경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자발적 상호협력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5개 항목의 추진내용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대·중소유통업의 동반발전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의회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력선언서 내용과 같이 지역공헌사업, 교육사업, 동반사업 등의 대·중소 유통업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유통업간 핵심역량 활용 및 공유를 통한 상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활성화되면 심의, 조정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내 대·중소 유통업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시킴은 물론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천상병 시인 올해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제4회 천상병예술제,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의정부시 장암동에 거주하면서 제3시집 '천상병은 천상시인이다'의 다수의 시집을 발표한 천상병 시인이 올해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됐다.

이달의 문화인물 현양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시군의 추천과 경기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상병 시인이 올해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됐다.

시인이며 평론가인 천 시인의 본관은 영양, 호는 삼은(深濼)이며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후 귀국하여 중학교 시절부터 문단 활동을 하였다. 살아있는 시인의 유고 시집이 발견되는 일화를 남기기도 한 그의 시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서정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순수성을 군더더기 없이 표현하며, 우리시대 교과 천상병으로 통한다.

의정부시는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천 시인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등에 홍보하고 특히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4월27일부터 5월9일까지 천상음악회, 천상무지컬, 천상백일장, 전시회 등 제4회 천상병예술제 행사를 개최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세계 100위권 경기국립대학교 추진

경기도, 한경대-재활복지대 통합합의각서 체결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서울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는데 이어 2개 국립대학 통합을 이루어 경기도는 교육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월5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한경대-한국재활복지대간 통합합의각서 체결식'에 참석, "도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또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최초로 통합하는 한경대학교(안성시 소재)와 한국재활복지대학(평택시 소재)은 통합대학교 명칭을 경기국립대학교(가칭)로 하고 세계 100위권 대학 순위진입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이어 "한경대학교와 재활복지대학 두 대학에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안주하지 않고 도민, 국민이 원하는 대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감사하다"며 "도는 공무원의 의지가 아니라 도민의 열렬한 희망, 그 결 만들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국립대학교(가칭)'을 위한 통합합의각서(MOA)를 체결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일신 한경대학교 총장, 장석민 한국재활복지대학 학장이 광창신 교육인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開館

의정부시 호원동 한주프라자 3층 3천5백여권 장서 비치

의정부시 호원동 한주프라자 3층에 83.01㎡ 규모의 장애인 점자도서관이 4월2일 김문수 의정부시장, 시각장애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했다.

점자도서관 개관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의 촉각으로 점자책을 읽어 세상에 대한 다가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기북부지역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점자도서관으로 점자도서를 제작하고, 대출해 주며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학습지원 및 점역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의정부시 호원동 한주프라자 303호에 위치한 점자도서관은 83.01㎡의 규모로 녹음도서 1천4백여권과 점자도서 1천5백여권, 목자도서 6백여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ARS 음성정보 등을 제공한다.

경기북부점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점자도서관(871-0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원도봉산 환경지킴이 활동

의정부시 호원1동 사회단체 위원

의정부시 호원1동 14개 사회단체 위원 및 관내 소재 육군제2997부대 장병 등 300여명은 4월6일 오전 10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원도봉산 및 호원천 계곡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진달래 꽃이 피는 화사한 4월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찾는 원도봉산에서 호원1동 주민자치총결대 및 13개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도봉산 입구에서 호원천까지 동절기에 하천변 및 등산로를 오가며 행락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를 줍고 또한 원도봉산을 등산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캠페인도 펼쳤다.

오후3시까지 계속된 환경정화 활동으로 1톤 트럭 3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특히 겨우내 상류에서 떠내려 오거나 인근 주민들이 무단투기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던 호원천 일대가 행사에 참여한 단체회원들의 힘으로 말끔히 정리됐다.

환경정화에 참여한 모두가 하천에 들어가 하천 구석구석에 쌓인 오물들을 수거하느라 옷이 젖어도 개의치 않는 열의를 보

였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굵은 땀방울 속에 보람찬 하루를 보내 기뻐하는 등 등산하는 등산객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다.

원도봉산내 계곡 주변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가재, 날도래 등 수서곤충 등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이날 실시한 환경정화 활동은 등산객들에게 자연보호의 중요함과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 등산로 및 계곡, 하천 등 물살을 앓고 있던 호원천 일대를 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기로 다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62회 식목일 기념 조림행사

의정부시 낙남동에서 300여명 참석

의정부시는 4월3일 김문수 의정부시장, 이학세 의회의장 등 공무원,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2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낙남동 궁촌 마을회관 뒤에서 개최했다.

식목일을 맞아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사람과 숲이 상생 공존하는 새시대 창출을 위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잣나무 대모 1천500본을 1ha의 임야에 심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고취시키는 물론 지속적인 숲 가꾸기에 앞장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쾌적하고 푸른 의정부를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 옛 모습 사진 공모전

의정부시는 우리 고장의 옛 모습과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통해 지역정서를 공유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의정부 옛 모습이 담긴 사진, 엽서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를 배경으로 옛 모습이 담긴 기록물을 소장하고 계신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산, 호수, 자연상태 등의 자연경관과 관광명소, 축제, 문화행사, 유적, 세시풍속, 제례 등의 관광문화, 농촌풍경, 시장, 향토음식, 뒤골박, 옛 건물 등의 생활상 등 의정부를 배경으로 하는 1970년 이전의 사진, 엽서 등이면 가능하다.

응모자격, 작품규격 및 출품수량은 제한 없이 접수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공보과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에 대하여는 오는 7월 심사를 거쳐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선정된 작품은 화보집에 수록하며, 의정부시 주최 행사시 출품자 성명을 기재하여 전시하고 시정홍보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용시 판권은 출품인에게 있다. 원본은 시상 후 반환된다.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접수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